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순식 단장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주요경력]

1980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2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  
2009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총청체신청장  
2010 (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부회장  
2014~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단장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을 가져다줄까.” 이는 스마트그리드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의문이다. 스마트그리드가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형상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또 피부로 와 닿을 만큼 보편화돼 있지 않기에 이러한 의문은 매우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문들을 하나 둘씩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기술개발 및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확산사업을 통해 우리 삶의 깊숙한 곳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제대로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스마트그리드 확산·보급·실증사업 등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들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순식 단장을 만나 과연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스마트그리드의 전성시대를 이끌어 낼지 그 묘안을 직접 들어봤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순식 단장이 취임한 것이 지난 3월이니까 이제 두 달여가 흘렀다. 사실 두 달이라는 기간은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지만, 정보통신분야에 있어 잔뼈가 굵은 그이기에 지금 신 단장은 업무 파악을 넘어 스마트그리드가 현재 처한 상황은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정확히 맥을 짚고 있었다.

“스마트그리드는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먹거리를 챙겨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들이죠.”

사실 신 단장은 취임 전부터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만큼 사업 진척도 빨라야 했지만 현실에 있어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다고 한다.

“작년 5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속 프로젝트들이 진행됨으로써 연속성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열기가 식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항상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수장으로 자리한 그이기에 절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에 대해 신 단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하며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스마트그리드 추진 속도가 좀 주춤 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단은 그동안 제주 실증사업 등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되돌아보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조목조목 짚어보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 Power Interview

즉 신 단장은 주위에서 보기에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이 좀 더디다고 느끼는데, 절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신 단장은 어떻게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신 단장은 사업단을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에 있어 최적의 조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을 먼저 강조했다.

“확산사업을 앞두고 사업단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여기에 사업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 단장은 스마트그리드 네트워크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단의 대내외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신 단장은 사업단의 향후 역할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현재 사업단 명칭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직의 명칭이나 지위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또 역할이 주어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신 단장은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사업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함으로써 그 능력을 구비한다면 그에 따른 명칭 및 지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 단장은 그 능력에 있어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단에 이러한 능력들을 펼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많은 부분에서 갖춰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에 있어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업단의 경우 제주 실증사업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신 단장은 향후 진행될 확산사업에 있어 전체적으로 모든 확산사업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단이 종합상황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도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향후 당분간의 사업단 업무는 확산사업에 중심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사업단의 주요 사업 계획 역시 확산사업을 빼 놓을 수 없다. 확산사업은 제주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주택가, 공단, 상업지구 등과 같은 실제 환경에서 구현해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확산사업은 작년 10월에 8개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본격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도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신 단장은 이러한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은 물론, 외부적으로도 참여 컨소시엄과 자문단 등 사업의 준비와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기 보급사업과 상호운용성센터 구축 등 확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신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단이 자문위원 및 8개 예비사업자 책임자들과 함께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곧 시작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 신 단장은 어떤 전망을 하고 있을까.

“대략 올 3분기 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 및 정부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는 확산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 단장은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확산사업이 종료되면 사업화된 모델들을 바탕으로 민간주도 하의 전국 단위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확산사업의 경우 정부가 기업에게 스마트그리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과 함께 본격적인 스마트그리드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확산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 단장은 그 이유를 정말 다양하게 제시했다. 가장 먼저 신 단장은 기존 실증사업의 경우에는 기술 검증 단계였다면, 이번 확산사업은 상용화 단계로 들어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주도로 진행되기에 자생적 정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확산사업은 본격적으로 스마트그리드의 정착을 의미하기에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그리드가 구축이 되면 우리 사회를 많은 부분에서 변화시킬 것이라고 신 단장은 내다봤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그리드의 본래 목적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소비 형태를 개선함으로써 피크전력을 약 10% 정도 감축하게 된다면, 즉 ‘부하평준화’를 이룬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 항상 걱정하는 여름·겨울철 전력수급 걱정도 100%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신 단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따른 환경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그리드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차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T/F 회의 모습.

# Power Interview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대명제를 동인으로 해 국내외적으로 정부 주도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RPS(신재생의 무할당제), EERS(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와 같은 규제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에게 점점 강력한 투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핵심과제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 단장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정전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전력망의 신뢰성 및 에너지



지난달 22~23일 열린 스마트그리드 보안 워크숍 모습

안보 측면에서도 사회적 핵심인프라로서 스마트그리드의 보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동기를 기반으로 신사업의 창출 가능성을 높이면서 새롭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새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다양한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단이 그 중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스마트그리드가 좀 더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번 확산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도 필요하다는게 신 단장의 생각이다.

“확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스마트그리드가 우리 실생활에 널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보급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쉽게 ESS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하루 빨리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또 신 단장은 이번 확산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간, 컨소시엄 간에 원활한 정보 교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 실증사업 추진 시에는 컨소시엄 간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산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분명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 표출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정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이 협의체에서 조정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신 단장의 생각이다.

신 단장이 준비한 이러한 계획 및 역할들이 차질 없이 수행이 된다면 스마트그리드가 한층 더 빨리, 또 깊숙이 우리 실생활에 정착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더욱 확고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그 파급 효과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까지 미칠 것임을 잘 알기에 신 단장의 향후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